



### 장애물 없이 산정까지 '무장애 길'

숲길이 완만하다. 단아하다.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가쁜 숨 몰아쉬지 않고 산정까지 오를 수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도 괜찮다. 곳은 날씨에도 불편하지 않다. 살랑살랑 바람결도 달콤하다. 온몸으로 호사를 누린다. 억불산(해발 518m) 말레길이다. 옛집의 대청을 '말레'라 한다.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공간이다. 말레길은 장애물 없는 데크 길이다. 주변 풍광도 예쁘다. 산정에서 내려다보는 시가지와 다도해 풍광도 멋스럽다. 편백숲우드랜드를 품은 장흥에 있다.



05 귀농·귀촌  
공공비축미 대신 중국산 숲 보관 농협창고에 새로운 활력을



06 남도문화  
민족은 달라도 진심은 통했다  
일본인의 국경 초월한 사랑...공생원



07 포구이야기  
작은 섬에 수선화 활짝 '꽃섬'  
꽃축제 연 신안군 지도읍 선도



08 매력전남  
짧은 인연, 작은 은혜도 소중하게  
'도망자' 김구 숨어지낸 보성 쇠살마을

# 한전공대 2022년 정상 개교 '탄력'

## 지원안 도의회 의결...세계적 특화대 설립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이 지난 11일 전남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원 동의안은 한전공대 발전 기금으로 개교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모두 1천억 원을 지원해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한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광주·전남 대학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 지난 1월 나주 부영CC 일원으로 부지가 선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1000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된다.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에 조성하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은 오는 6월 기본계획 확정, 9월 학교법인 설립에 이어 2020년 2월 도시계획 변경, 6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나주 빚가람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 한전공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나주 빚가람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전라남도는 협의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 면역치료연구원과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해양치유단지 개발과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

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타 조속 통과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총사업비 승인 ▲예타 면제사업 조속 추진(압해~화원/화태~백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박주민·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결위간사,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성소방서 개청...소방관 108명 근무  
◇ 장성소방서가 지난 15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장성을 유탕리에 자리를 잡은 장성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08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대가 배치됐다. 행정기구는 3과, 2개 119안전센터와 1개 119구조대, 1개 지역대로 편성됐다.

##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마을방송 등 통해 전파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O<sub>3</sub>)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고농도 오존에 의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의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00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00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과 언

론기관,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에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전송하고 시·군에서는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한다. 오존은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기온이 높고 바람이 약해 대기 확산이 적은 5~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수산업, 청년·여성이 책임진다

### 수산업경영인 집중 육성 대상자 890명 선정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전남 어업인 890명이 선정됐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1천560억 원이다. 지원 대상 수산업경영인을 단계별로 보면 어업인후계자 544명, 전업경영인 312명, 선도

우수경영인 34명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18명(8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187명(21%)이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640명(72%), 어선어업 204명(23%) 순이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단계별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용 비닐온실 재산권 인정

###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권 인정은 물론 담보 제공도 가능해져 농업 경영 개선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필름으로 설치됨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 전남양성평등센터 개소

전남지역 양성평등거점기관 역할을 할 '전라남도 양성평등센터'가 지난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양성평등센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성 평등 교육과 성 평등 문화 확산사업 등 다양한 성 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전남만평 조독필 pill2lcc@naver.com

# 암태도-서울·광주 시외버스 운행

## 천사대교 개통...서울 2회, 광주 7회

신안 암태도와 압해도를 잇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서울, 암태~광주 간 시외버스가 운행에 들어갔다.

암태~서울 노선은 하루 2회, 서울에서 오전 9시와 오후 3시 출발한다. 암태에선 오전 8시,

오후 4시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4시간 40분이다.

암태~광주 노선은 송공항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암태도까지 연장, 하루 7회 운행한다. 광주에서 오전 5시50분, 8시5분, 8시50분, 11시5분, 오후

12시40분, 1시30분, 4시25분 출발한다. 암태에선 오전 8시40분, 10시25분, 오후 12시30분, 1시40분, 2시40분, 3시25분, 7시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이다.

전라남도는 이용객 추이에 따라 시외버스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이 지난 16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남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조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도민 누구나 걱정 없는 안전한 전남건설"을 강조했다.

##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 희생자 추모, 진상규명 안전한 전남 건설 다짐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이 지난 16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진도 씨김굿보존회의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식은 추모사, 진도 학생들의 추모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조속한 진상 규

명과 함께 도민 누구나 걱정 없는 안전한 전남건설"을 강조하고, '행복 4·16기록관'은 해수부, 진도군과 협의해 적절한 위치에 조성하겠다고 했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생업을 뒤로한 채 유가족을 돕기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와 진도군민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 함평에 재현된 상해임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의향전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기념식은 식전 공연,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횃불 안치,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 희망나무 심기, 희망나비 날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은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독립운동가의 활약상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극화했다.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증액'

최대 30만 원...부가급여 포함 38만 원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증액 지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

우 기초급여 25만 원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올라 최대 38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

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 청년 창업농 258명 선발

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 농지 우선 임대 등 지원

전라남도는 전남 농업의 미래를 이끌 20~30대 청년 창업농 258명(남성 212명, 여성 46명)을 선발했다. 영농 경력은 예정자 114명(44%), 1년차 105명(41%), 2년차 29명(11%), 3년차 10명(4%)이다.

이들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 월 최대 1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2ha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후계농 자금도 3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과 자조금 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39명을 선발해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농자금,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등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성 작은 영화관 개관

96석 규모...관람료 6000원

보성 작은 영화관이 지난 5일 보성읍 녹차골 향토시장에 문을 열었다. 전남의 작은 영화관 7호점이다.

2개 관 96석 규모의 보성 작은 영화관은 국비 5억 원 포함해 모두 19억 5000만 원을 들여 2D는 물론 3D 입체 영화까지 상영 가능한 시설과 매점,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관람료는 6000원이다. 전라남도는 장흥,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등 6개 군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 도시재생 순천·여수·구례 선정

국비 310억 원 지원 도시 활력 회복 추진

국토교통부의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순천과 여수, 구례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310억 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787개다.

선정된 사업은 순천시 조곡동 일원의 '생태비즈니스 플랫폼', 여수시 한려동의 '여성청소년과 함께하는 백년재생', 구례군 구례읍의 '뉴카터로 살릴레오'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18억 원을 들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회복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공모 방법 등에 대한 연찬회와 도시재생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협의회'를 통해 공모 컨설팅을 해왔다.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공모 준비도 해왔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전남 도시재생 활성화' 토론회 개최, 도·시·군 도시재생 협업교육, 소규모재생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LH 등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시켜 공공임대주택 건립, 혁신 거점공간 조성 등 기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span style="float: right;"><b>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b></span>		
발행·편집인 김영록	대변인 안병욱	발행처 전남남도
편집위원 오덕환 이돈삼 최경수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함읍 오룡길 1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전화 ☎061-286-2071-2	팩스 ☎061-286-4722	이메일 ds2032@korea.kr
구독(무료)신청 ☎061-286-2074 이메일 dc6088@korea.kr 누리집 news.jeonnam.go.kr		
※ '새롬'이란? '새롭다'와 '뜨다'의 합성어로 새롭게 뜨는 소리, 새로운 소식, 반가운 소식이란 의미가 담긴 조어입니다. 창간 1997년 1월 15일 (격주간 매월 5일, 20일 발행)		
전라남도 www.jeonnam.go.kr	전남새문 news.jeonnam.go.kr	전남뉴스 jntv.go.kr
블로그 blog.naver.com/greenjeonnam	페이스북 www.facebook.com/jeonnam.kr	
트위터 twitter.com/greenjeonnam	유튜브 www.youtube.com/user/greenjeonnam1896	

남도전통주  장흥 안양주조 '햇찹쌀이하늘수'

# 햇찹쌀로 빚은 생막걸리 "라쉬 본 막걸리 중 최고예요"

진한 우윳빛이 입맛을 돋운다. 사발에 쫄쫄 부어 들어왔다. 맛깔스럽다.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감칠맛이 그만이다. 진하고 깊은 맛도 남다르다. 톡 쏘는 청량감과 깔끔한 뒷맛은 덤이다.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고 조화를 이뤘다. 신선하고 산뜻한 맛이 또 한잔을 부른다. 절로 해벌죽해진다. 전라남도가 4월 남도를 대표하는 전통주로 선정한 '햇찹쌀이하늘수'다.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가-41호)을 받은 고급 생막걸리다. 남도전통주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그 진가를 알렸다. '막걸리 마니아'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즐겨 마시기도 했다.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을 격려하는 자리에도 내놓았던 술이다.



## 직접 농사지은 친환경 햇찹쌀로 빚어

'햇찹쌀이하늘수'는 대한민국 스타팜 지정업체인 '안양주조'가 빚는다. 막걸리로 알아주는 곳이다. 장흥군 안양면에 있다. 안양주조가 있는 주교마을로 길을 잡는다. 점심 무렵, 정갈한 양조장에 사람들이 연신 들락거린다. 저마다 양손에는 막걸리 상자가 들려있다.

"장흥이 고향인 한 지인이 소개해 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마셔본 막걸리 중 최고였어요. 장흥에 놀러온 김에 몇 박스 사가 이웃과 나눠 마시려고요."

천안에 사는 이용주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햇찹쌀이하늘수는 친환경 햇찹쌀에 누룩을 넣어 저온발효한 후 저온 장기 숙성해 빚는다. 친환경 햇찹쌀은 안양주조 채창현(47) 대표가 직접 농사지은 쌀이다. 햇찹쌀로 빚으면 묵은 쌀이나 수입쌀을 사용할 때보다 맛이 신선하고 산뜻하다. 깔끔한 맛도 배가 된다.

"농사를 지으니깐 농민들 마음을 잘 알죠. 우리 술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장흥에 사는 농부들이에요. 농민들에게 수입쌀로 만든 술을 마시게 할 순 없잖아요."

채 대표가 직접 농사지은 햇찹쌀만 고집하는 이유다. 쌀누룩을 발효시켜 걸러낸 발효액만을 쓴다는 것도 남다르다. 물도 특별하다.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천연암반수를 사용한다. 자연탄산을 함유하고 있어 술 빚기에 맞춘다.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 정책의 일환으로 순수한 우리 쌀로만 만드는 '햇쌀 막걸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햇찹쌀 70%, 쌀누룩 30%로 술을 빚어 참여했죠. 애초 프로젝트에만 참가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내친 김에 제품화했죠."

채 대표가 말하는 햇찹쌀이하늘수의 탄

## 신선하고 산뜻한 청량감 '압권'

## 종가주 비법 계승·발전 상품화

## 쌀누룩 발효액 사용 남달라

생 배경이다.

젊은 층의 인기를 얻으며 안양주조의 맥을 잇는 차세대 전통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양주조를 대표하는 술은 따로 있다. '안양동동주'다. 천년종가주로도 불린다. 자타가 공인하는 장흥의 대표 막걸리다. 햇찹쌀이하늘수가 쌀누룩 하나로 발효시키는 반면, 안양동동주는 네 가지의 국을 넣는다. 쌀누룩을 비롯해 대맥, 소맥, 물국까지 넣는다. 부드러우면서도 전통적인 투박한 맛이 강점이다. 진한 맛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즐겨 찾는다.

하늘수는 500mL에 1100원, 안양동동주는 800mL에 1100원이다. 이렇게도 택배로는 신청할 수 없다. 양조장으로 직접 찾아



가야 맛볼 수 있다.

## 맛은 옛 그대로, 설비는 최신

"친정이 광산김씨 종가였어. 내가 큰딸이다 보니 음식 장만은 늘 내 몫이었제. 술 빚는 법도 그때 배웠지."

지금의 안양주조를 일궈낸 김연초(80) 어르신은 말이다. 안양주조의 막걸리는 광산 김씨 종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를 고급화시킨 종가주다. 종가집에서 경조사와 제수용으로 빚던 찹쌀술 제조기법을 계승·발전시켜 상품화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안양주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맛과 위생'이다.

"술 빚는 방식은 어머니가 종가에서 만들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설비까지 옛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옛 설비는 위생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막걸리도 음식인데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채 대표의 말이다. 안양주조의 위생관념은 양조장 창문에 그대로 배어 있다. 2013년 양조장을 새로 지으면서 프로젝트창으로 완전히 밀봉했다. 창틀사이로 초파리나 날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술 지게미와 술을 분리하는 제성기에도 녹아 있다. 전국을 휘젓고 다닌 끝에 얻은 '체에 받치는 원리'를 적용했다. 주조장에서 흔히 쓰는 원통형 제성기는 청소가 힘들고 술에 술지게미가 끼어 위생상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의 안양주조장은 격려해주고 응원해 준 지역민이 없었으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보답할 길은 지역 주민에게 '맛있고 깨끗한 술'로 대접하는 일이지"

채 대표가 햇찹쌀을 사용하고, 설비를 바꾸면서까지 '맛있는 술'을 만들려는 속내다.

찾아가는 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주교비동로 4

# 좋은 술 빚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 채창현 안양주조 대표

채창현 대표는 중학교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까지 서울에서 마쳤다. 술을 빚기 전까진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녔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막걸리 산업이 급격한 사양길로 접어들었죠. 안양주조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어요. 빚이 7억 원을 넘어 부도위기에 직면했으니까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형편이었죠."

남편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양조장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막내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채 대표가 서울 생활을 접고 정남진 장흥으로 내려온 까닭이다. 그의 나이 26살이 되던 해였다.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시에는 술을 어떻게 빚는 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주저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다음날이 돼야 잠자리에 들었다. 낮엔 눈에 나가 버려 돌보고, 저녁이면 양조장에서 술과 씨름했다. 1년 365일 되



임영주 담양에서 태어났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케냐의 한 커피농장에서 맛본 커피 맛을 기억하며 귀농, 고향에서 커피농사를 짓고 있다. 커피농장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키워나갈 꿈을 꾸고 있다.

임영주의 사는 이야기 - 8. 역할 바뀌는 농협창고

# 농협 미곡창고에 새로운 활력을

◇ 장흥 안양주조가 빚는 '햇찰쌀이하늘수'와 '안양동동주'. 햅찰쌀로만 빚어 신선하고 산뜻한 맛이 일품이다. 햅찰쌀이하늘수는 젊은 층이, 안양동동주는 진한 맛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 ① 안양주조 내부 ② 장흥군 안양면 주교마을에 있는 안양주조 전경.



◇ 채창현 대표와 어머니 김연초 어르신.

풀이하는 일상이었다.

“납품을 다니면서도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단 한 명이라도 술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하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곧바로 양조장으로 들어가 만들고 또 만들곤 했죠.”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남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술을 제대로 빚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빛도 밝고, 주조장 운영도 안정케도에 올라섰지만 그는 지금도 술 속에 파묻혀 산다. 소비자의 '맛있다'는 전화 한 통화에 날을 지새우기도 한다. 무엇보다 술 빚는 게 즐거워서다.

“혹자는 자기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술을 빚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귀한 손님,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술을 빚습니다.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아닌 '좋은 술 빚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술 하나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소원 중 하나입니다.”

채 대표의 술 빚는 마음가짐이자 소망이다.

커피농장의 아침은 늦게 시작된다. 해가 다른 곳보다 늦게 뜨기 때문이다. 시설하우스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커다란 농협창고가 아침 햇볕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그만큼 봄도 더디 온다. 봄은 늦고, 겨울은 빠르고 길다. 겨울에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겨우 햇볕이 들어온다. 최악의 입지 조건이다. 알면서도 감행했다. 소도시 땅값 뺄치는 이 지역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농사를 시작할 자금이 부족한 탓에 부모님이 평생 농사 지은 밭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밭농사를 지을 때도 지금처럼 해가 늦게 떴다. 당연히 봄은 늦고, 겨울은 길었다.

농협 양곡창고를 지을 때, 벼를 수매하고 저장하는 농협창고는 지역의 자랑이었다. 농민 조합원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농협의 위세가 대단했고, 쌀농사가 절대적이었을 때 얘기다.

부모님은 자신의 밭에 창고 지붕의 낙숫물이 바로 떨어지고, 그늘이 드리워져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몰랐다면, 내 부모님은 순박하거나 무지했을 테다.

### 트레일러 엔진 소리가 깨우는 아침

해가 일찍 뜨는 창고에서 이른 아침부터 차의 엔진 소리로 요란하다. 평소와 달리 벼가 담긴 800kg 톤백을 실어 나르는 오픈형 대형 화물차량이 아니다. 선박용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화물차다. 그 차가 공공비축미로 가득 차 있는 농협창고의 마당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철망 펜스가 쳐진 탓에 대형 트럭이 한 번에 드나들 수 있는 각이 확보되지 못해서다.

창고 앞 삼거리 아스팔트 위에 시커멓게 타이어 자국을 그려가며 몇 번의 후진과 전진을 시도한 끝에 겨우 마당으로 들어간다. 후진 차임벨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엔진이 내뿜는 요란한 소리가 고요한 시골의 아침을 흔든다. 지게차가 컨테이너 속에서 종이 상자를 부지런히 내려 창고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 공공비축미가 아니고, 중국산 참숯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창고 속에 있던 공공비축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다.

수매한 벼를 담은 그 많던 톤백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 동안 농협이 공공비축미 보관비로 창고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는 임대 수익 사업을 하는 모양이다.

실제 전국의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3900여 곳에 이른다. 한 해 보관비만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공공비축미는 군수용, 재해나 비상 복지용, 가공용,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모아 둔 쌀이나 벼를 일컫는다. 농협이나 민간창고 등에 곡물 종류와 생산 년도, 등급, 품종에 따라 나눠서 보관하고 있다.

### 아련한 옛 수매 날의 풍경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 공공비축미를 보관하던 농협창고에 중국산 참숯이 벼가마니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다.

무색해진 지 이미 오래다. 앞으로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벼를 수매하는 장면도 보기 힘들 듯하다. 농협도 양곡창고를 임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창고의 변신은 어쩔 수 없는 교육책임 수 있다. 벼를 쌓아야 할 창고에 다른 것들로 메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을 수확 후 축제와도 같았던 추곡수매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 소달구지에 이어 경운기가 나라를 실어 나르더니, 이제는 트랙터나 화물차가 대신한다. 가마니 대신 톤백이고, 현금 대신 통장이다.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막걸리 한잔 거나하게 걸치며 정담을 나눴던 구판장의 추억은 사라졌다. 어릴 적 봤던 수매 날의 풍경이 살포시 떠오른다. 아련하다. 그 속에 '바보'같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계신다.

한때 우리나라의 제1차 산업인 농업은 식량증산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이었다. 그때 지어진 농협창고가 이제는 임대수익 사업으로 또는 매각되고 있다. 임대사업도 좋지만, 덩치에 걸맞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면 어떨까.

농민과 함께 하고, 조합원 자산이기도 한 창고를 허물 수는 없는 일이다. 황량하고 칙칙한 벽에 농민의 일상을 담은 벽화를 그려도 좋겠다. '형무소' 같은 철망도 걷어내자. 먼지투성이고 썩대밭으로 변한 마당을 동네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행사장으로 활용하면 또 어떨까. 농민과 농협이 함께 나누고 베푸는 상생의 마당으로 탈바꿈할 날을 기다린다.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막걸리 한잔 거나하게 걸치며 정담을 나눴던 구판장의 추억은 사라졌다.”

담양커피농장 대표농부

다우치 치즈코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목포 공생원

# 민족은 달라도 진심은 통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다.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다.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는 다우치 치즈코, 한국이름 윤학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 무대가 공생원이다. 목포 유달산 자락, 대반동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

공생원은 전라남도의 첫 번째 고아원이다. 한국사람 윤치호와 일본사람 치즈코 부부의 위대한 여정이 배어있는 사회 복지시설이다.

공생원을 설립한 이는 윤치호다. 그는 가난 때문에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14살 때 소년가장이 됐다. 미국인 선교사 덕에 피어선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양동교회 전도사가 됐다.

## '일본사람' 편견 참으며 고아 돌봐

당시 목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다. 걸인들도 득실됐다. 윤치호는 냇가 다리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고아 7명을 데려다 함께 생활했다. 공생원의 출발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1928년이였다. 그의 나이 18살 때다.

한두 명씩 데려다 키운 어린이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었다. '거지대장'으로 불리는 윤치호였지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치즈코를 만난 건 이 때다.

치즈코는 1912년 일본 고치현에서 태어났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포로 왔다. 1919년 3·1운동 직후다. 그녀의 나이 7살 때다. 치즈코는 야마데소학교(유달초등학교)를 거쳐 목포고등여학교(목포여중)에서 공부를 했다. 졸업 후 정명여학교 음악교사로 취직했다.

교사 치즈코에게 목포고등여학교 은사가 제안을 한다. '공생원에서 보람있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치즈코가 공생원에서 한국 고아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계기다.

치즈코는 일본의 만행에 속죄를 하고, 고아들에게도 웃음을 찾아주고 싶었다. 치즈코와 윤치호 원장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혼인을 했다. 치즈코의 이름도 '윤학자'로 바꿨다. 윤학자는 일본사람한테 가해지던 온갖 편견을 참아내며 남편과 함께 고아들을 보살폈다.

해방이 되자, 윤치호와 윤학자는 친일파로 몰렸다. 공격은 윤학자에 집중됐다. 공생원 원아들이 방패막이로 나섰다. 원아들은 '일본사람이지만 윤학자는 우리



◇ 윤학자는 '일본사람'이었지만, 죽을 때까지 '한국사람'으로 살았다. 공생원 원아들과 함께 한 생전 윤학자의 모습이다. ①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 시절 ② 윤치호·윤학자 기념관 ③ 기념관 내부 ④ 윤치호·윤학자 원장과 7명의 어린이를 형상화한 '사랑의 가족' 기념비

들의 어머니'라며 인간띠를 만들어 보호했다. 민족은 달라도 진심은 통했다.

윤학자는 한국전쟁 때도 '고아들을 두고 도망갈 수 없다'며 공생원을 지켰다. 남녘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이 친일부역자라고 몰아세웠다. 국군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렸다. 원아들에게 먹일 식량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선 남편 윤치호가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된 뒤에도, 윤학자는 원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윤학자의 한국 고아 돌봄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한국전쟁 때도 계속됐다. 1968년 56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목포에서 고아들을 돌봤다.

1963년 한국정부가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일본정부도 1967년 남수포장을 주며 공적을 기렸다.

## 옛 석조건물, 부부 기념관 탈바꿈

공생원에는 담장이 따로 없다. 아무라도 무시로 드나들 수 있다. 여기에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이 있다. 1961년에 지

어진 석조건물이다. 원아들의 기숙사로 쓰였던 곳이다. 지난 2012년 윤학자 탄신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으로 꾸며졌다. 여기에서 윤치호와 윤학자, 그리고 공생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공생원 마당에 '사랑의 가족 기념비'도 있다. 2003년 목포시민들이 성금으로 세웠다. 윤치호·윤학자 부부와 함께 어린이 7명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7명은 윤치호가 처음 데려와 돌본 고아 숫자다. 1949년 공생원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세운 기념비도 있다.

1949년 세운 공생원 강당도 그대로 남아있다. 해안가에 표류해 온 난파선에서 쓸만한 목재를 골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어머니의 탑'도 있다. 1968년 경향신문에서 윤학자를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운 현장비다.

공생원을 품은 유달산에 봄꽃이 활짝 피었다. 윤치호와 윤학자의 마음꽃도 아름답다. 목포앞바다를 품은 대반동과 유달산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다.

## 전남의 첫 번째 고아원 '공생원'

## 윤치호·윤학자 부부 설립 운영

## 식량구하러 나간 윤치호 행불

## 윤학자, 죽을 때까지 아이 돌봐



2

3

4



김준 곡성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어촌사회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도 섬과 갯벌을 누비면서 어민들을 만나고 있다. 저서로 <섬문화 답사기>, <김준의 갯벌 이야기> 등이 있다.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 작은 섬에 수선화 활짝 ‘꽃섬’

15년 전 7월 어느 날, 철쭉처럼 어두운 하늘의 구름 뒤에서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바다와 섬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배를 저었다. 아내가 낚시줄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몇 차례 빈 낚시만 올라왔다. 어느 순간 아내의 손이 순식간에 바닷물을 내리치더니 낚시를 주워 올린다. 탄도와 선도 사이 바다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바다에 나갔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내내 부부와 함께 바다에 있었다.



해서다. 선도에 수선화를 심게 된 배경은 이렇다. 서울살이를 하던 현복순(88) 할머니가 집과 주변에 수선화를 비롯해 다양한 꽃으로 잘 가꾸어 놓은 것을 박우량 군수가 보게 되었다. 그 시연을 듣고, 마침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운 테마 ‘꽃섬’에 맞춰 선도를 수선화섬으로 특성화한 것이다.

선도는 신안군 지도읍에 속하는 섬이다. 160여 가구 27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마을은 배가 닿는 포구에 진번, 학교 옆에 남악과 매계, 섬 가운데 주동마을과 대촌 그리고 북쪽에 북촌마을이 있다.

1986년 선도가 고향인 남편을 따라 들어왔지만 현 할머니는 농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갯일은 더욱 할 수 없었다. 대신에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었다. 수선화도 진도 친구 집에서 얻어와 심은 것이 시작이었다.

선도는 작은 섬이지만 대촌 앞 ‘용수들’, 북촌 주변 ‘앞들’, ‘오르골’ 등 갯벌을 막아 조성한 너른 논을 가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 수매를 할 때면 지게에 지고 진번까지 옮겨 수매를 했고,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 지금은 한적하지만 진번 선착장에 여섯 개나 되는 가게가 문을 열던 시절도 있었다.

울긋불긋 봄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언덕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수선화뿐 아니라 길가에는 섬에서 자생하는 민들레와 봄까치풀 꽃들이 활짝 피었고, 청보리밭은 바다와 어우러져 섬의 풍경이 됐다. 매력적이다.

## 작은섬 수선화 축제에 1만명 방문

낚시를 잡던 그 바다를 가로질러 선도를 찾은 여행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이 들어왔다. 흥도에서 긴급하게 투입된 배다. 무안군 망운면 신월선착장에서 도선과 여객선이 진번마을에 도착을 했다. 선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적이 있었던가. 작은 섬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수선화축제’를 구경하기 위

여행객들은 너도나도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한두 해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지만, 화사한 수선화는 선도를 ‘꽃섬’으로 만드는 데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시작된 수선화축제에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임자도 ‘튤립축제’에 이은 신안의 꽃섬 축제다. 주동마을을 지나 대촌으로 가는 사이에 축제의 모태가 되었던 현 할머니 집이 있다. 입구에 ‘수선화의 집’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고 할머니와 이야기도 나눈다. 2016년 문을 담은 선도분교는 행사장으로 변신해 활기가 넘친다.

신안군은 ‘플로피아 신안’을 꿈



◇ 선도를 꽃섬으로 조성하고 뿌리와 꽃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꾀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① 현복순 할머니의 수선화의 집 ② 선도 주민의 낚시 주낙 모습 ③ 선도와 무안군 신월리를 오가는 도선 ④ 수선화 길을 걷는 관광객들.

“ 첫 꽃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피웠지만 이제 주민들이 맡아야 한다. 열매도 주민들이 직접 거둬야 한다.”

꾸고 있다. 플로피아와 유도피아, 꽃과 이상향의 합성어다. 플로피아 신안은 역점 시책사업인 ‘1004섬 공원화’ 계획의 하나이다. 선도에 수선화축제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첫해 성공...지속성 고민 진지해야

신안군은 수선화를 심어 선도의 관광농업과 구근과 꽃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꾀할 계획이다. 이것이 신안군 계획 아닌, 선도 주민들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관건은 주민참여와 주도다.

지금은 수선화를 심는 것도, 가꾸는 것도 모두 공무원 몫이다. 지역축제가 다 그랬다. 표어처럼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이야기하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현실이다.

일회성 행사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농사짓는 땅을 일궈 꽃밭을 만들었으니, 이젠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농사짓는 것보다 낚시잡이가 훨씬 낫고, 갯일을 하는 것이 더 소득이 높으니 젊은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다. 하물며 수선화를 활용해 소득창출로 가는 일은 지난하고 힘든 일이다.

첫 꽃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피웠지만 이제 주민들이 맡아야 한다. 그 열매도 주민들이 직접 거둬야 한다. 직접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만 탐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

늦은 밤에 젊은 사람들이 낚시잡이를 나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주민들이 수선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야, 아니면 찾게 해야 한다. 주민참여를 바라기 전에 신안군이 해야 할 부분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 쇠실마을회관에서 본 백범김구 은거지 풍경이다. 쇠실은 '도망자'였던 청년 김구가 숨어들어 40여 일을 지낸 마을이다. ①김광언의 집 ②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 ③ 쇠실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

## 짧은 인연·작은 은혜도 소중하게

### 백범 김구 닮은 마음씨 고운 사람들...보성 쇠실마을

삼일절에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 김구 선생이 떠오르는 이유다. 백범 김구(1876-1949)는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쳤다. 우리 겨레의 큰 김구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선봉에 섰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었다. '아기 점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교육자로서 애국 계몽운동도 펼쳤다. 신민회 사건에 연루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4년 간 옥살이도 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자 '문지기'를 자처했다. 경무국장을 맡았다. 이어 국무령, 주석 한인애국단을 조직, 일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주도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 미국·영국 등 연합군과 공동작전도 폈다.

해방이 되자 11월 조국에 돌아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국도와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자주 독립국가, 통일정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친일, 반민족·반통일 세력의 흉탄을 맞았다. 1949년 6월 26일이었다.

#### '도망자' 김구 숨어든 산속마을

백범의 옛 자취를 찾아 기러기재(雁峙)를 넘는다. 목적지는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쇠실마을이다. 마을입구에 '백범 김구 선생 은거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쇠실마을은 안동 김씨 집성촌이다. 한때 500~600명이 살았다. 2번국도 너머의 넓은 땅을 경작하는 '부자'들이었다. 지금은 5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다.

"참다래(키위)를 많이 재배해요. 마을 주변에 다래밭이 지천입니다. 5월 중순경부터 꽃이 피는데, 그때는 마을이 꽃동산으로 변해요. 주민들도 바쁘죠. 앗꽃에다 수꽃가루를 일일이 무쳐주는, 인공수분 작업을 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니깐요. 여름까지 계속 해요. 그 사이에 모내기도 해야 하고요."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최중식(69) 이상의 말이다. 덕분에 주민들의 주머니는 두둑한 편이다. 마을사람들이 즐겁게, 부지

런히 일한다.

백범이 쇠실마을을 찾은 건 1898년 음력 5월이었다. 이름도 '김구' 아닌 23살 청년 김창수였다. 대동강변에서 일본군 장교 쓰치다(土田)를 맨손으로 죽인, 치하포 의거로 붙잡혀 인천감리서에 갇혔다가 탈출한 직후다. '감옥에서 죽는 것은 왜놈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게 탈옥의 이유였다. 쓰치다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하수인이다.

'도망자' 신세가 된 김창수는 삼남지방을 전전했다. 산 깊은 마을을 찾아다니다 숨어든 곳이 쇠실마을이다. 안동 김씨 종친인 김광언의 집을 찾았다. 이름도 '김두호'라는 가명을 썼다.

그는 이 집에 40여 일 머물면서 마을사람들의 독립의식을 드높였다. 우리 역사도 가르쳤다. 마을사람들도 남다른 그를 융숭하게 대접했다.

"선생은 종친 어른들과 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을사람들한테는 중국역사가 아닌, 우리 역사를 가르쳤고요. 민족정기를 일깨우면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킨 거죠. 짬이 나면 뒷산에 올라 체조를 하고, 바위 밑으로 흐르는 물에 목도 감았다고 하고요. 이 집을 떠날 때 비로소 '내가 일본사람을 죽이고 피해 다닌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

### 김구와 마을사람들 마음 '화사' 참다래 많이 재배하는 부자마을 5월 다래꽃 피면 '꽃피는 산골'



신이 보던 책 '동국사기(東國史記)'를 선물했는데, 속에 이별을 아쉬워하는 한시 한수가 적혀있었다고 해요."

김광언의 증손자 김태권(74) 어른신의 말이다. 김 어른은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이별하기 어렵구나 이별하기 어렵구나/ 헤어지는 곳에서 일가의 정이 솟는다/ 꽃 한가지를 반씩 나누어 한 가지는 종가에 남겨두고 떠나네/ 이 세상 살아 언제 만날 것인가 이 강산을 떠나기 또한 어렵구나/ 넷이 함께 놀기 한 달이 넘었는데 일이 어긋나 아쉽게 헤어지며 떠나는구나'

마을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한시 '이별난'의 일부분이다.

#### 지붕만 바뀌고, 옛 모습 그대로

청년 김창수가 머문 집에는 지금 자목련이 활짝 피어 있다. 꽃잔디와 어우러진 장독대도 단아하다. 마당엔 천리향과 철쭉이 꽃망울을 머금고 있다. 텃밭에선 수선화, 금낭화, 할미꽃이 소담스런 꽃을 피웠다.

당시 두루마기 차림의 김창수가 마루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던 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집의 구조나 마당이 사진 속 풍경과 같다. 지붕만 추가에서 기와 모양의 슬레이트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숲이 감싸고 있는 주변 풍광도 옛 모습 그대로다. 그 마루에



강상현 본적 해남, 태생 영암, 성장지 순천인 전라도 토박이. 순천고와 전남대학교, 중앙대-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 위원, 이집트박물관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우리글진흥원장,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상현의 풍류해자 - 77. 산불의 언어와 대(對)정부 건의



스승으로 통한다.

으로 일하며 항일에 앞장섰다.

선생이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집 앞에는 백범 김구 은거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도 있다. 1990년과 2006년에 들어섰다. 한옥 형태의 조그마한 기념관에서 선생의 일생을 엿볼 수 있다. 쇠실마을에서 지낸 이야기가 담긴 '백범일지(白凡逸志)'도 복제본으로 만난다.

김구가 쇠실마을을 다시 찾은 건 1946년 9월, 선생의 나이 71살 때였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담은 한시를 남기고 떠난 지 48년 만이었다. 이름도 '김두호'가 아닌,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였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술문을 세우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했다. 술문은 환영이나 축하를 위해 나무기둥을 솔잎으로 감싸서 만든 문을 가리킨다. 그는 마을을 다시 찾아 '감격에 넘치었다'고 '백범일지'에 적었다.

김구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쇠실마을에 머문 기간은 두 차례, 40여 일이었다. 일생에서 그다지 길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짧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작은 은혜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전했다. 마을사람들도 그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겼다.

그 두 마음이, 마을에 활짝 핀 노란 개나리처럼 화사하고 예쁘다.

# '담배, 어따가 터삼?' 길거리는 재떨이가 아님!

광화문의 해태 상(像)은 불 즉 화기(火氣)를 잡으라는 뜻이다. 상상의 동물 해태가 원래 그 역할의 상징이 아님에도, 우리 역사는 그에게 그런 임무도 부여했다. 바다 해(海) 발음이 불 끄는 수호신을 상상하게 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다. 한자로는 獬豸다. 쫓는 '치'로도 읽는다.

큰 불, 인명(人命) 재산과 함께 산하(山河)의 생명력을 망가뜨린다. 이재민(罹災民)의 아픔은 우리 마음과 돌일 수 없다. 곳곳하게 털고 일어나시기를 기원한다.

TV에서 불의 여러 이름들이 잇따라 들려왔다. '주불이 잡히지 않고 번진다'고 했다. 의아했지만, 곧 '아하 현장(에서 쓰는) 언어로구나'하는 감이 잡혔다. 주된(main) 불 주불(主-)이겠지, 한국어에서 한자가 갖는 자격과 역할을 살피게 한다. 산불(山-)도 메(산)에 난 불 아닌가.

어느 정도 진화는 됐는데 잔불(殘-)이 남아 걱정이란다.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다. '꺼져가는(殘) 불'이다. 이 경우는 뒷불과 비슷하게 쓰이는 듯 했다.

불붙은 솔방울 등이 날아가 순식간에 멀리 불을 옮기는 것을 비화라고 했다. '날아가는(飛) 불'이다. 도깨비불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는 비불(飛-)이라 하지 않고 비화(飛火)로 불렀다.

꺼진 불은 사화(死火)다. 골짜 골짜를 뱀처럼 휘감으며 연신 번지는 불은 '뱀 불'이라고 한다. 이를 한자어로 사화(蛇火)라 하지 않는 것은 같은 발음 死火와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은 꽃불, 화화(花火)다. 숯덩이나 장작에 불이 핀 것은 잉걸 또는 불잉걸이다. 이런 언어 중 상당수는 사전에 실리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토속어나 현장의 언어에 무관심한 모양이다. 기억 속의 아름답고 쓸모 많은 말들이 시나브로 잊혀 사그라지는 것이다.

불을 가리키는 말이 많은 것처럼, 화재

## 토막새김

**회**록(回祿)이란 말, 사어(死語)와 다름없는 망각 속의 언어다. 그리스 신화의 '불 도둑'프로메테우스에겐 익숙한 우리 사회가 '동양의 프로메테우스'에는 어둡다. 중국 전설에서 '불의 신'으로 불리는 오회(吳回)와 육종(陸終), 회와 陸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어쩌다 육(陸)이 같은 발음의 록(祿)



◇ 민화(民畵)에 그려진 해태. 원래 법(法)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우리 전통에서는 '소방수' 역할도 겸한다.

“ 담배 권 손을 창밖으로 내미는 것은 길거리를 재떨이로 삼는 것이다. '위반'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행위가 아닌가?

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일어난다. 무서운 불을 막기 위해 산마다 해태 상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런 이미지는 어떨까. 필자의 제안이기도 하다.

언젠가 아는 이 사무실 게시판에 붙은 작은 스케치가 재미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들고 왔다. 디자인 직원에게 부탁해 스티커용(用)으로 가공하니 특이한 금연 또는 불조심 그림이 됐다.

금연을 위해 TV나 담배케이스 광고에 공포감을 주는 내용을 넣기도 하는데, 이런 위트 있는 그림은 그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주위 사람들이 기발하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눠주기도 했

다. 저작권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밝혀준다.

해태 상이나 이 스티커 그림을 마음에 떠올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는 물론 길거리의 청결과 시민의식까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상황을 보자.

차창 밖으로 담배 든 손을 내밀고 재를 던진다. 그러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튕기듯이 불붙어있는 부분을 떨어낸다. 또는 손가락으로 불붙은 부분을 눌러 떼낸다. 그 다음은 슬그머니 담배꽂초를 놓아버린다. 운전하며 담배 피우는 이나 동승자 중 상당수 또는 대부분의 모습이다.

꽂초가 수없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끔찍한 장면, 익명(匿名)의 뒤에서 일부 시민이 벌이는 행실이다. 연기는 공기 오염으로, 재는 (미세)먼지로, 모두에게 피해를 줄 터다. 앞차의 불붙은 담배 조각이나 꽂초가 뒤차에 떨어지거나 차안으로 빨려 들어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

산불의 상당수가 이런 행태 때문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담배를 끌 때 특히 연기와 냄새가 독해 이를 피하려고 실내 재떨이 대신 창밖으로 쉬 해결(?)하는 버릇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남의 차 언어 타는 동승자의 경우, 차주에 대한 '예의'가 또한 이런 풍경을 부채질한다.

또 하나의 제안, 담배 든 손을 차창 밖으로 내미는 행위는 이제 '위반'으로 규정돼야 한다. 재만 던다 해도 이는 어엿한 불씨다. 더구나 꽂초는 산불 등에 치명적이다. 차량마다 달린 블랙박스가 매순간 거리를 촬영하니 적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차가 불의 씨앗을 내뿜고 다니는 운전습성을 고치는 일, 가성비 높은 정책 투자다. 우리글 진흥원장

법성전에서 난 불로 가옥과 선박 등이 타버렸다고 보고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회록의 재앙이 400여 호에 이르렀고...'라는 기록(1807년, 순조실록)도 있다.

어떤 말은 이렇게 스러지나보다. 담배도 사라질까? 우선 담배가 화마(火魔)의 씨앗 노릇하는 것은 당장 없애야 옳다.

자로 바뀌어 '회록'으로 쓰이게 됐다. 陸과 祿의 중국어 발음은 [루]다. 전설시대 삼황오제 중 전욱(顓頊)의 손자 형제로 불 즉 화재를 잘 다스렸다. 이런 인연으로 한자문화권에서 회록은 불이 주는 재앙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게 됐다.

'이런 회록을 당하신 터에...' (이인직 '모란봉')처럼 신소설에 쓰였다. 전라감사가

# 추도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섬

## 여수 추도상회 김현호 씨

추도는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섬이다. 섬 곳곳에 수억 년 전 공룡들이 살다간 흔적이 남아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일렬 공룡 보행렬도 있다. '공룡 섬'이다.

여기에 협동조합 '하나린'이 있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사업의 새 주민 사업체로 선정됐다. 추도청년 김현호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일부 시설 지원금에다 자부담이 더해졌다. 많은 전문가의 현장 멘토링도 결합했다.

최근 섬에 '추도상회'가 문을 열었다. 비전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주변의 만류에도 묵묵히 일을 하며,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섬을 지키자는 청년의 마음이 만들어낸 성과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늘 배제되고 소외되는 섬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섬이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섬을 지켜온 어머니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청년 김 씨의 말이다.

추도상회는 옛 학교의 교실과 관사, 매점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여기서는 생활용품과 기념품을 살 수 있고, 음료도 마실 수 있다. 섬여행에 필요한 소품도 빌려주고 있다. 오래 전 구관장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

석해 만든 생활용품점이다.

"섬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섬을 안내하며, 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어요. 섬을 여행하고 섬에서 나갈 때까지 섬과 섬주민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탐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추도상회 주인장 김 씨의 말이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익의 일부를 추도의 환경 보전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도 적립할 예정이다.

"추도는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지켜야 할 섬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인식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씨의 다부진 포부에서 앞으로 추도의 모습이 그려진다. 김 씨의 추도사랑과 섬사랑을 응원한다.

여수 조미선 명예기자



## 보성 울어 자모들에서 첫 모내기

◇ 보성군 울어면 자모들의 박석균 씨 논 4000㎡에서 지난 11일 올해 첫 모내기가 이뤄졌다. 박 씨는 이날 조생종 벼 밀키퀀을 심었으며, 오는 9월 수확할 예정이다. 보성 주정진 명예기자

## '장보고웃장'서 장 보는 즐거움을

### 해조류박람회장 마당

'장보고웃장'이 27일 완도해조류박람회장 마당과 군민회관에서 열린다.

장터에 나오는 물건은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은 물론 가공품, 생활용품 등이다.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이벤트도 마련된

다.

장보고웃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닌, 생태와 나눔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직접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돈과 물건은 물론 생산자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이야기까지 오고가는 소통의 장을 지향한다. 완도 정미순 명예기자

### 토막소식

####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최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5월 3일부터 나흘 동안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싱싱한 수산물과 함께 다양한 해양자원을 체험할 수 있다. 완도 김향숙 명예기자

####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개소

청소년 전용공간인 목포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상 3층의 센터는 북카페, 동아리실, 강의실, 다목적홀 등 모두 17개의 활동공간을 갖추고 있다. 목포YMCA가 위탁 운영한다. 목포 노정숙 명예기자

#### 목포, 중국어 무료 강좌 개설

목포시는 중국어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5월 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3차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548)로 물어보면 된다. 목포 김향원 명예기자

#### 주인영 회장 장학기금 기탁



장성밀알회 초대 회장을 지낸 주인영 전 회장이 밀알장학기금으로 5000만 원을 내렸다. 장성밀알회는 주 회장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정, 12월 장성밀알회장이·취임식 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성 김운명 명예기자

#### 유용 미생물, 연중 무료 공급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을 시민에 무료 공급한다. 유용 미생물은 종자 소독, 토양 시비, 액비 조제, 축사 소독과 청소, 세탁, 음식물쓰레기 악취 제거 등에도 활용된다. 유용 미생물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갖고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찾아가면 된다. 여수 문은형 명예기자

#### 성인용 기저귀 후원물품 전달

여수 봉사단체 천사회(회장 기문중)는 지난 3일 성인용 기저귀 50상자(500만원 상당)를 여수시에 기증하고,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해주도록 했다. 여수 문은형 명예기자

##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 어린 시절 추억 떠올려주는 진달래꽃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마른 숲과 언덕 벼랑에서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나고 있다. 진달래꽃 따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뒷동산에서 뛰

어놀다 배가 고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찹쌀가루반죽에다 진달래 꽃잎을 살포시 얹고 썩임으로 맛을 낸 화전을 만들어 줬다. 한 장씩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던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봄과 함께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그때 진달래 화전은 최고의 간식이었다.

진달래꽃은 꽃으로 먹고,



약에도 쓸 수 있어 '참꽃'으로 통한다.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분홍색·진분홍색·자주분홍색 등 색깔도 다양한 통꽃이다. 사랑의 기쁨, 애뜻한 사랑, 첫사랑을 꽃말로 지니고 있다.

순천 이현영 명예기자

## 밤하늘 보며 '별빛여행'을

### 5월 3~5일 죽녹원 일원 대숲 거닐며 별빛 감상

담양군은 담양대나무축제 기간에 맞춰 담양의 깨끗한 밤하늘을 보며 인문학 명사와 함께 하는 '담양 별빛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담양 별빛여행은 죽녹원 봉황루에서 인문학 강사의 담양

이야기를 듣고, 대숲 산책로를 거닐며 영산강문화공원에서 버스킹 공연도 본다. 플라타너스 숲속에서 별빛을 감상할 수도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자세한 것은 담양군청 녹색관광과(☎380-3151)로 물어보면 된다.

담양 송명숙 명예기자

###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

화순군이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우유나 주스 팩으로 쓰인 종이팩을 친환경 화장지와 바꿔준다.

종이팩 200ml는 화장지 20매, 500ml는 10매, 1000ml는 5매 기준으로 친환경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준다. 교환을 하려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말려서 가져오면 된다. 교환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준다. 화순 문숙희 명예기자



전라남도가 도와 산하단체에 흠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전남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후계 농업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창업 비즈니스 컨설팅, 스마트 팜 개설, 6차 산업화, 스마트 경영 실습 온실 임대, 청년 사업가 유통조직 육성 등이 지원대상 사업이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 27곳의 16개 수종을 대상으로 미세 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숲과 나무를 찾기 위한 연구사업을 한다.

전라남도도는 올해 1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축산 농가와 액비 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과 액비 살포비,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2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생명의땅 으뜸전남TV 도정뉴스(2019. 4. 12.)를 QR코드로 만난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을 내려 받아 스캔하면 시청할 수 있다.

노동 상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

환김에 '그만두겠다' 말한 근로자 해직 '무효'

**문** 근로자 A씨가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승진과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대표가 팀장 직급인 A씨에게 팀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환김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때 A씨의 의사표시 효력은?

**답**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A씨의 진의가 아닌 '비진의 표시'로 대표가 A씨의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마친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그 의사표시가 자신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

펴보면, A씨가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냐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대표는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A씨는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으므로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A씨가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나 흥분이 가리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A씨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부당하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동 전남지역본부가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임금·해고·산재 등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566-2537

나원참 선생



전남새싹 구독(무료)신청 ☎286-2074

취업정보 ※채용-채용 때까지 모집

※문의-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080-500-1919 / 061-287-1142~3

사업장	직종	인원	근무	전화번호(061)	급여(만원)	마감	학력
(주)신화기술	토목설계기술	1	나주	334-8836	연2400	채용	고졸
	도시계획설계	1					
(주)유창	생산기계조작	1	나주	331-3024	월200	채용	무관
참새골 방앗간	떡제조	1	장성	394-6990	시급8350원	채용	무관
현대기술검사(주)	비파괴검사	1	순천	052-285-4381	연2400-3500	채용	무관
삼진식자재도매물류	매장계산	2	강진	536-2941	월205	채용	무관
고흥호나무리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1	고흥	832-8312	월175-185	채용	무관
(유)동양아이엔지	경리사무	1	영암	463-7016	월190	채용	무관
(주)연일	용접	1	나주	331-4566	월200	채용	무관
김지현농장	작물재배	1	담양	2657-5931	시급8350원	채용	무관
농업회사법인(주)행복한밥상	콜센터상담	1	무안	281-2812	월175	채용	무관
(주)이지	환경미화	1	화순	371-0044	시급8350원	채용	무관
세라탑	도자기생산	1	무안	280-0539	시급8350원	채용	무관
마린테크	경리사무	1	광양	793-8686	연2100	채용	무관
(주)진농	영업	1	화순	374-2626	월230	채용	무관
(주)기성	카드경력	1	여수	720-9115	연2500-2700	채용	무관
서원토건(주)	현장공무	1	순천	726-9005	월300	채용	무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요양보호사	3	순천	755-4450	시급9720원	6.9	무관
(주)피엔비테크	설비 청소및정비	1	여수	692-4831	시급8350원	채용	고졸
천년나무어린이집	보육교사	1	목포	283-7535	월175	6.9	무관
대양전기	내선전기	1	여수	651-7779	연2800-3500	채용	고졸
(주)네오세라믹	도자기생산	1	무안	453-4531	월175	4.30	무관
올가뷰티	피부관리	1	순천	752-2276	월175	무관	무관

사업장	직종	인원	근무	전화번호(061)	급여(만원)	마감	학력
(주)도이프	생산 및 품질관리	2	순천	721-3077	연2400	무관	고졸
	기술개발	1			연2800	5.10	초대졸
(주)세기건설	경리사무	1	순천	743-5491	연2200	채용	초대졸
유성엔지니어링(주)	선박선체 생산설계	3	영암	070-8230-4800	월190-350	채용	고졸
(주)리턴츄라이	경리사무	1	무안	724-1400	월175	채용	무관
우주종합건설(주)	현장시공관리	3	여수	689-2032	연3200-3600	채용	고졸
(주)청진	생산품질사무	2	영암	280-0539	월200-250	채용	무관
(유)수정	재무회계	1	화순	062-512-1116	연2600	채용	무관
지오이엔비(주)	컨베이어벨트 정비수리	1	광양	798-1907	월210	채용	고졸
(주)한성엠에스	특수경비	6	여수	062-371-7122	월261	채용	무관
다솜어린이집	운전	1	여수	659-3694	시급8350원	6.10	무관
(주)코리리농기계	수리	1	고흥	834-6648	연2100-2500		고졸
동원철강(주)	영업관리	1	보성	720-9115	월190-210	채용	무관
	사무관리	1					
시엔시(주)	단순종사	1	여수	247-9900	월200	채용	고졸
(주)성운개발	공무관리	1	나주	062-609-8548	월250	채용	무관
대명중기	지게차기사	1	광양	794-4038	월230	채용	무관
(주)푸른중공업	지게차기사	1	영암	464-0900	시급8350원	채용	무관
	기계용접	1			월280		
	덤프운전	1			장흥	864-8101	월270
(주)일성	건설기계 운전	1	여수	683-3353	월250		
	기계정비	1			연3500-4500	5.6	무관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1	해남	280-0572	월174-184	채용	무관

# 경제적 약자 보호...불균형 해소

## ‘전남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제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쳐 경제주체 사이의 갈등 해소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이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



인의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도와 시·군 간 정책협의, 도민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주(비례·사진) 의원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생존’ 초등학생 수영교육 돕는다

## 수중 위기 대처능력 향상...안전사고 예방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이 이뤄진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생존 수영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수영을 일컫는다.

조례에는 수영교육 시설과 생존 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영(해남·사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교육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영장 등 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동학혁명 사적지 발굴·보존한다

## 기념사업 조례...정신 계승 계기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인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을 앞두고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적지 발굴·보존을 비롯 관련 사

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전남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정신계승, 사적지 홍보 등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와 문화재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사순문(장흥·사진) 의원은 “인본주의에 기초해 적폐와 외침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찬란한 역사”라면서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낸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농어업 대책 마련을

## “농·어업인은 미세먼지 최대 피해자”

“장시간 야외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은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대책 수립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신안·사진) 의원은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세먼지법’에 농어업인을 취약 계층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MO 완전표시제 촉구

전남도의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유무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 교통비

##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결

65살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



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차영수(강진·사진)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전국 평균보다 2.23배 높다”고 말했다.

# 공동육아로 양육문제 해결을

##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문기관 지원도 규정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전문기관 경비 지원 등을 담은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하근(순천·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오 의원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가족품앗이가 활성화돼야 핵가족화, 맞벌이 등에 따른 양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문화콘텐츠 제작·교육훈련 지원

##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의결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 첨단기술·장비 개발과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창업업을 하는 개인과 기관·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길용(광양·사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도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원메신저 증원·공개 모집

## 조례 개정...투명성 확보

전남민원메신저 위촉과 관련, 성별과 나이,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하고 모집도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민병대(여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



다. 개정 조례안에는 민원메신저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민원메신저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 13명 의원 나서...농업, 경제, 노동, 복지 분야 등 송곳 질문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3일과 5일 이틀 간에 걸쳐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도정 질문에는 문행주(화순)·박문옥(목포)·김길용(광양)·이혁제(목포)·임종기(순천)·유성수(장성)·이보라미(영암)·이철(완도)·최현주(비례)·우승희(영암)·최무경(여수)·박진권(고흥)·김경자(비례) 의원이 차례로 나섰다.

도정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문행주 의원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사업과 호남의병 추모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박문옥 의원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물품구매 개선책, 김길용 의원은 어르신 복지시설 안전대책, 이혁제 의원은 전남지역 역량 강화대학 지원방안에 대해 물었다.

임종기 의원은 전라남도의 인사 행정, 유성수 의원은 장성지역에 발생한 싱크홀 대책, 이보라미 의원은 전남서부권 근로자 건강센터 유치 등에 대해 물었다.

둘째 날인 5일 이철 의원은 약산-금일 간 연륙교 건설, 최현주 의원은 4·16 팽목기록관 건립, 우승희 의원은 영산강 하굿둑 해수 유통, 최무경 의원은 여수 도성마을 주거환경 개선, 박진권 의원은 서남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김경자 의원은 고흥의 스마트팜혁신밸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했다.

답변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도교육감을 비롯해 전라남도도와 도교육청의 실·국장이 참여했다. 도정 질문·답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다.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도정 질문에는 문행주 의원 등 13명이 나섰다. 답변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해 도청과 도교육청 실·국장이 참여했다.

### 마한문화권 사업 전담 조직 필요

문행주 의원(화순)



우리 지역의 의병활동을 한곳에서 보고 추모할 수 있는 가칭 '호남의병 추모기념관'을 건립해 후손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지사 답변=** 마한문화권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마한의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전남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마한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의병 역사공원'조성과 관련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과 체험관을 갖춘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통해 호남의병, 남도의병의 뜻을 기리고 현창사업을 하겠습니다.

**질문=**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한문화권 사업이 경남·북의 가야문화권 사업보다 추진과정이나 예산에 있어 동력이 약합니다. 경남·북은 TF팀을 꾸려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라남도는 도청 문화자원과 내에 기존의 다른 업무와 병합해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산강 마한문화권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가야문화권 사업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합니다. 사업여부에 따라 전남에도 또 하나의 경주나 부여와 같은 관광수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수많은 의병과 민초들이 나라를 위해 쓰러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병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역사적으로 망실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 소상공인 정책개발·집행 인원 부족

박문옥 의원(목포)



자체들과 균형 있는 상생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남에는 소상공인이 31만 8000여 명이 있습니다.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폐업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도청에는 '소상공인팀' 직원 5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과 사업 집행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핵심 내용 중 상권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상권영향분석은 지자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분석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가져와야 합니다. 한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더라도 인접 지

**도지사 답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22개 시·군의 금융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다방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상공인팀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 정부는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분석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옮기는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어르신 복지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김길용 의원(광양)



행정실, 회의실, 운동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자력 대피 능력을 감안해 입원실을 저층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선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1층에 배치된 지원시설을 고층으로 옮기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입원실을 저층에 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문=** 올 3월 기준으로 전남에는 어르신이 41만4000여 명 있습니다. 전남 인구의 22.1%로 이미 전남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더불어 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미흡합니다. 화재 등으로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구조를 어르신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요양·복지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2층 이상의 고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대형 화재 이후 정부에서도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세세한 대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의 제안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층별로 환자를 배치하는 것과 행정실을 고층으로 옮기는 문제는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해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대안을 점검해 정부에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답변=** 소방안전은 아무리 강

### 역량강화대학 지원 방안은

이혁제 의원(목포)

**질문=** 교육은 국가 정책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 지역의 8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국립대인 순천대학교마저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돼 정원을 10% 감축해야 합니다. 광양보건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평가돼 정원의 35%를 감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종합대학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목포지역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은 목표



대학교에 언제 의대가 설치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답변=** 순천대 등 대학 총장들과 만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광양보건대 문제는 설립자의 횡령, 부실경영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강도 높은 자구책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노령인구와 섬이 많아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의과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 방향은

임종기 의원(순천)

**질문=**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도지사의 인사 행정에 대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인력의 균형 배치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부연해 주십시오. 부단체장의 선발기준과 보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하고, 동일 시·군에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의 인사교류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 군수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은 젊은 부단체장을 선호합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청년 가까이 돼서 부단체장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부단체장은 50대 중반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여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조직권이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답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전라남도 인사의 기본 요체입니다. 시·군부단체장 인사 기준은 전라남도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급 경력이 부시장 2년, 부군수는 3년 이상 된 경우 직무능력, 청렴성, 정년 잔여 임기 등을 함께 고려해 시

### 싱크홀 조사위원회 주민 주축돼야

유성수 의원(장성)

**질문=** 장성의 한 광산 주변에서 싱크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철로 주변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여섯 번입니다. 묘하게 6월경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을 대는 시기입니다. 광산의 채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한 남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부광산안전사무소는 광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는 선로 좌우 50m와 지하 50m를 정밀 조사해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교량 건설 때와 2014년 조사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산



측은 자연 공동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3월 민관사협의회를 구성, 광주 소재 대학 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용역 기관의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광산 측 용역을 맡아오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주축이 돼 민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 답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한 조사와 주민 대표성을 강화할 방안에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의 걱정 해소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부권 노동자 건강센터 적극 유치를

이보라미 의원(영암)

**질문=**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에도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70여만 명이 이르는 전남지역 노동자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5배나 높습니다. 노동자 건강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에는 동부권인 여수에 노동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18만 명이 이용하면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성과



가 두드러집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80%가 향상되고, 내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에 있어서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남서부권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입니다. 서부권 노동자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남서부권의 산업 재해율은 최고입니다. 전남서부권에도 근로자 건강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센터는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의 유치 의지에 따라 성과가 갈리고 있습니다.

**도지사 답변=** 건강센터 신규 공모가 올 하반기에 있습니다. 전남서부권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완도군민은 완도-제주 간 제3 초고압 직류송전망 사업과 풍력발전, 돈사 건립 문제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백지화돼야 합니다. 아울러 약산-금일 간 연륙교 건설은 지역 숙원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안관광도로인 완도-고흥 건설 사업이 남해안권 발전 종합수정 계획에 반영되고, 완도-고흥 간 국도 기점이 고금도로 변경되도록 최우선

### 약산-금일 간 연륙교 조기 착공을

이철 의원(완도)

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완도 노화-구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2017년 완료됐습니다만 2차 구간인 구도-소안 간의 연도교 건설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지사 답변=** 전라남도는 과거 약산에서 금일을 거쳐 고흥에 이르는 해상도로 건설에 대해 10억 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산에

서 금일에 이르는 이 해상 교량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종합 2단계 계획을 세워 남해안권 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소안 간 연도를 위해서는 노화-구도 간, 구도-소안 간 2개의 교량 건설이 필요합니다. 노화-구도 간 사업은 완료됐으나 구도-소안 간 교량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4·16팽목기록관 건립 빠른 해결을

최현주 의원(비례)

질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조작 은폐 증거가 드러나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그동안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가 요구한 추모 공간·공원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팽목기록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관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4·16 5주기를 맞았으면 합니다.

2011년 이후 전라남도의 성평등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최하위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등에서 여전히 낮고, 의사결정 분야도 굉장히 낮습니다.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도지사 답변=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수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산과 운영 주체 등 대부분의 권한이 해수부에 있습니다. 진도항(팽목항)배후부지 개발은 진도군에 있습니다. 진도군은 물론 해수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성평등지수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요청해야

우승희 의원(영암)

질문= 2016년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영산강 재자연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 하구 수질·생태개선과 관련한 조사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했을 경우 염수 유입 거리가 가장 짧고 수질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산강 주변 농민들도 하굿둑 해수유통에 61.3%가 찬성, 반대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정책도 하구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5·18 관련 전남도만의 기념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5·18은 전남도청과 떼어 수 없는 역사적·공간적 기억을 가지고 있



습니다. 내년이 5·18 40주년입니다. 광주·전남이 함께 '5·18 40주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했으면 합니다.

도지사 답변=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는 2007년 행정부지사로 일할 때도 논의가 한창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염수 침투, 농업용수 등 제반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류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18 40주년 기념행사는 광주와 함께 치루고, 우리 전남만의 자체 행사도 마련하겠습니다. 5·18사적지 추가 지정도 서두르겠습니다.

### 여수 도성마을 악취 특단 조치를

최무경 의원(여수)

질문=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 주민이 방치된 폐축사,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와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론 사계절 내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축사는 1970년대에 지어진 개방형으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축산 분뇨는 공동화시설로 처리하고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을 전체적으로 방치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석면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매연과 분진도 심각합



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 주변 주거 지역 대기오염을 조사할 때도 산단과 제일 가까운 도성마을은 빼고 이뤄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성마을 대기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환경대책과 정주여건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지사 답변= 도성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악취문제와 석면슬레이트 처리 등 환경정비에 대해 여수시, 환경부 등과 논의해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산단의 악취 문제는 도성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해안관광도로 조기 완공을

박진권 의원(고흥)

질문=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서남해안관광도로 사업은 국도77호선인 신안 압해에서 해남 화원 간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간을 연도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광에서 목포, 여수까지 남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섬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화태에서 백야를 연결하는 사업은 여수 한려해상공원과 고흥 우주센터 간 최단 거리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 및 해양 섬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너무 깁니다. 조기에 완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교통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100택시도 확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전라남도는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내년에 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완도-고흥 간, 신안 하의도 연결 등에 대해서도 서남해안 관광벨트 2단계 사업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100원택시의 확대를 바라는 지역민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입니다. 전남의 농가 인구는 31만 1000여 명으로 전국의 12.9%에 해당합니다. 농정예산·경지면적·30대 이하 청년농자·유리온실 등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고흥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유치돼 기쁩니다. 전남의 스마트 농업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농을 유입시키고, 영세농이 결성한 조합단위로 스마트팜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에 맞는 기술개발과 농

### 스마트팜혁신밸리 영세농 참여 보장을

김경자 의원(비례)

산물 과잉 생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유통과 판매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관련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혁신밸리



생산시설보다는 유통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지사 답변= 스마트팜혁신밸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토건산업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

내용 중 유리온실 건축, 도로, 주차장, 부지정비 등 기반 조성엔 사업비 175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토건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은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생산 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최저가격 안정제를 조려투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를 더욱 강화하고,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종 역할을 하겠습니다.



# 매일매일 골라 즐기는 남도여행



**온라인 구매** 검색창에 **남도한바퀴** 검색 <http://citytour.jeonnam.go.kr>

**오프라인 구매**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탑승 가능

**예매 및 문의** 062) **360-8502**

**탑승 장소**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32번홀, 광주송정역(택시승강장)

**탑승 요금** **9,900원 ~ 11,900원**

※ 날씨와 현지 사정으로 시간과 코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탑승 요금은 코스 상품별로 달라집니다. (코스, 거리에 따라 탑승 요금 차등 적용)